

| 농정토막 소식 |

칠레, 400여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칠레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로 미뤄 놓은 400여개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협상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일단 칠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조기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지난 23일 우리나라와 칠레 양국은 한·칠레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이, 칠레 측은 로드리고 콘트라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10.26〉

한·미 FTA 미국에 TRQ 너무 많이 내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가 전혀 없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농업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농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서서히 감축하거나 전혀 깎지 않는 대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16개 품목은 관세가 100%를 넘어 개방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유·버터·치즈 등 대부분 낙농품이며, 맥주보리와 감자 등 일부 곡물이 포함됐다.

〈자료: 농민신문 10.30〉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논의하는 산·관·학(업계·정부·학계)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태국 후아회에서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 일본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장관과 제6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료: 농민신문 10.28〉

‘농식품 인증제’ 활성화 서두르자 - ‘농가 참여 + 정부 뒷받침’ 성공 관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동적 구매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생산됐는지, 또 안전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알고 나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관련된 각종 농산물 인증제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보급 노력이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자료: 농민신문 10.28〉

녹색으로 갈아입는 세계의 도시들

유엔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도시 주민이

소비하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도시 내부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6억 명은 자신이 먹기 위해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 도시에서 넓은 토지를 차지하는 대학병원·군부대·공원 등의 부지는 도시농업을 하기엔 적당한 땅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방지 대책의 하나로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라별로 다양한 이름의 시티파머들이 도시농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자료: 한겨레21 10.30〉

“옥수수대로 바이오 에탄올 대량생산 가능”

경북대 김순권 교수와 계명대 윤경표 교수 공동연구팀은 비식량자원인 옥수수대로부터 재생자원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경작이 필요없는 농업 부산물로 값싼 바이오에탄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김순권·윤경표 교수 공동연구팀은 김 교수가 육종하는 ‘bm3 옥수수’에다 윤 교수의 옥수수대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이용해 에탄올 생산 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섬유소분해 당화 효소와 이 효소를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써도 동일한 성분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번 개발의 특징은 옥수수알이 아니라 옥수수대를 사용하고, 기존보다 적은 양의 효소를 이용해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해 같은 효율을 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 한겨레 10.27〉

디자인 옷 입은 4대강(江)…

4대강 사업의 상징 건축물인 16개 보(洑)의 디자인의 골격이 27일 공개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당초 정부는 16개 보 중 5개만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이른바 ‘명품 보’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모든 보에 지리적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금강엔 계백장군과 측우기, 영산강에는 나주쌀, 낙동강엔 따오기, 한강엔 백로를 형상화한 보가 들어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강 정비 사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지를 정부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치수(治水)는 물론 지역의 문화와 지역경제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년 뒤 나타날 각 지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자료: 조선일보, 10.29〉

기후변화..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한반도 온난화로 인해 국내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난 10년 동안 사과와 배, 감, 포도, 복숭아 등 과일 5종과 밀과 쌀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3종의 재배면적 변화를 통계지도로 작성, 발표했다.

〈자료: 연합뉴스 10.28〉

‘4대강 사업’ 북한강 3개지구 측량 완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8일 4대강 사업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중·송촌지구와 양평군 두물지구에 대한 측량을 마쳤다. 서울국토청은 이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난 26일 진행하지 못한 북한강 팔당지역 하천부지에서 지형과 지장물 등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다.

이로써 서울국토청은 경기도내 70여개 지구 7개 공구에 대한 측량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들 70여개 지구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공원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국토청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할 방침이다. 일부 농민과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자료: 중앙일보 10.28〉

서울 녹지 늘었다...

최근 8년 동안 도시공원화 사업 등의 여파로 서울 도심의 녹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1년 제작한 전국 토지피복지도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아리랑 위성 2호 영상을 활용해 갱신한 수도권 및 충북 일부 지역 토지피복지도를 비교해 분석

한 결과, 서울의 건조지역 비율은 다소 준 대신 초지 등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밝혔다. 주택, 도로, 위락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는 서울의 시가지 건조지역 비율은 2001년 61.56%였으나 2009년에 56.75%로 감소했다. 반면 산림은 22%에서 24.15%로, 초지는 2.2%에서 4.84%로 각각 증가했다.

〈자료: 중앙일보 10.28〉

“케냐 국민, 10년 전보다 더 가난해져”

동아프리카 케냐 국민이 1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29일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케냐 공공정책연구원(Kippra)은 전날 ‘2009년 케냐경제보고서’를 발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1997년의 1천340만명에서 2006년에는 전체인구의 41%인 1천660만명으로 늘어 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새로 극빈층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도시생활자 3명 중 1명이 월 3천 케냐실링(미화 40달러)으로 연명하는 반면 농촌지역 주민의 절반은 월 1천560 케냐실링(21달러)으로 생활해 농촌 주민들의 삶이 더욱 힘겹다고 밝혔다.

〈자료: 매일경제 10. 30〉